

2011년 국내 사료산업 동향 및

2012년 전망



홍성수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차장

1. 2011년 배합사료 산업 결산

가축 사육동향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시작되어 전남 북과 제주도를 제외한 11개 시·도 및 75개 시·군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후 금년 4월 5일 종식된 FMD는 우리 축산업계는 물론 후방산업인 배합사료업계에 깊은 내상을 남겨주었다. 배합사료 생산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척도인 가축 사육두수를 살펴봄에 있어 지난 FMD 발생시 살처분되었던 가축 마리수를 헤아려 보면 전국적으로 6,250 농가의 3,480마리에 이른다.[표 1] 참조

이에 따라 금년도 가축 사육 마리수는 큰 폭의 감소를 면치 못하였는데 1/4분기의 경우 전분기 대

비 전축종의 감소세를 나타냈는데 한육우의 경우 6.5%, 젓소의 경우 7.9%, 돼지의 경우 28.8%, 닭의 경우 6.0% 감소하여 FMD 및 AI의 여파가 여실히 드러났다. 다행히 정부를 비롯한 양축농가의 축산업 회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가동으로 금년도 3/4분기에는 한육우의 경우 사육마리수가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하였고, 닭의 경우에도 0.6% 증가하면서 완전한 회복세를 시현하였으나 돼지의 경우 21.4%의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FMD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다행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금년 4/4분기에는 돼지 사육두수가 전분기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표 2] 참조

[표 1] 2010/2011 구제역에 따른 가축 살처분 결과

(단위 : 천두)

전국 발생농가	살처분 두수				
	계	소	돼지	염소	사슴
6,250호	3,479,513	150,871	3,317,864	7,535	3,243

(자료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표 2] 축종별 가축 사육 마리수

(단위 : 천마리)

	분 기 별					전년동기 대비(B/A)
	10.3/4(A)	10.4/4	11.1/4	11.2/4	11.3/4(B)	
한육우	2,949	3,082	2,882	3,053	3,044	3.2
젖 소	429	430	396	403	404	△5.8
돼 지	9,901	9,881	7,036	7,330	7,783	△21.4
닭	140,990	149,200	140,283	179,985	141,799	0.6

(자료 : 통계청, 2011)

배합사료 생산동향

2010년 국내 배합사료 생산량은 17,533천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연초부터 거침 없이 증가하였던 생산량은 FMD가 11월말에 발생되어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배합사료 판매량 감소가 현실화되지 않음으로써 1962년 배합사료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생산량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FMD가 금년 4월까지 무려 6개월 동안 횡행하면서 돼지의 경우 1/3이 살처분되는 등 급여할 가축이 없어지고 사료판매 또한 이동제한 등에 묶이면서 원활한 급여가 여의치 않으면서 2011년 11월말 현재 배합사료 누계 생산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4.8% 감소한 15,142천톤에 머물러 있다. 다만 다행인 점은 FMD 이후 전년대비 배합사료 생산 증가는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4월 구제역 종식 직후 생산증가율은 전년대비 94.7% 였으나 이후 6월에는 95.4%, 9월 95.6%, 11월 95.2%를 시현하고 있다. [표 3]참조

2012년 배합사료 생산전망

이와 같이 2011년 11월말 현재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4.8%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연말결산을 해보면 그 감소폭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돈용 사료의 경우 후보모돈의 본격적인 입식과 더불어 안정적인 산자수(産子數) 증가로 10월 이후 사육두수는 구제역 이후 가장 가파른 회복세가 예상되며 배합사료 생산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배합사료 생산량을 전망해보면 먼저 한육우의 경

[표 3] 2011년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량

(단위 : 천톤)

구 분	2011.1~11월 (A)	2010.1~11월 (B)	누계대비 A/B(%)
양 계	4,335	4,245	102.1
양 돈	4,038	5,019	80.5
낙 농	1,128	1,174	96.1
비 육	4,364	4,304	101.4
기 타	1,277	1,166	109.5
계	15,142	15,908	95.2

(자료 : 한국사료협회)

우 200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육두수의 증가는 FMD 발생에 따라 2011.1/4분기 일시 감소세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이후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는바 이는 가임암소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암소 도축률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FMD 이후 쇠고기 소비위축이 쉽사리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의 경우 한미FTA의 발효와 한·호주, 한·캐나다FTA 체결 등이 목전에 있기 때문에 사육심리는 다소 줄어들겠지만 쇠고기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여 사육두수 증가와 생산실적의 꾸준한 증가세가 예견된다. 다만 정부의 조사료 정책에 따라 조사료 비율을 더욱 높이고 있는 점은 배합사료 생산량 증가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양돈용 사료의 2012년 전망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양돈재건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률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후보돈 및 순종돈 공급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후보모돈 입식후 1년 6개월~1년 8개월이 지나야 정상적인 출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2012년 3/4분기에는 FMD 발생전 사육두수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양돈용 사료 생산량 또한 2012년 하반기부터는 금년대비 큰 폭의 생산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양계용의 경우 육계용 사료는 종계 입식량의 증가에

의한 육계병아리 잠재 생산력의 증가와 환율상승으로 인한 닭고기 수입감소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산란계용 사료의 경우에도 산란종계 입식증가 및 계란가격의 상승에 의한 노계도태 지연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가 예견되고 있다.

2. 2011년 배합사료 가격동향 및 2012년 전망

2011년도 배합사료 가격은 국내외 사료산업의 불리한 여건에 따라 2010년의 3~5% 인상 수준에서 20% 내외의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원재료비 비율이 배합사료 제조원가에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원재료 중 해외 사료곡물에 대한 의존률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국제 곡물가격 및 환율의 상승폭이 그만큼 컸다는 데에 기인한다. 그 두 가지 요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 사료곡물가격 동향 및 전망

배합사료 원료 중 약 37%를 점유하는 옥수수의 국제가격은 현재 톤당 311불대를 보이고 있다. 이는 1월 평균 대비 3.7% 하락한 것이고 6월과

[표 4] 주요 사료용 원료 국제시세

(단위 : US\$/톤)

품 목	12월14일 현재(A)	6월평균 (B)	1월평균 (C)	가격변동률(%)	
				A/B	A/C
옥수수	311	372	323	-16.4	-3.7
사료용소맥	255	284	317	-10.2	-19.6
대두박	378	466	491	-18.9	-23.0

주) 동 가격은 CBOT(시카고상품거래소) 가격과 해상운임을 합산한 가격(C&F)임.

| 집중탐구 |

비교해 보면 16.4% 하락한 가격이다. 금년 한 해 동안의 국제 옥수수 가격을 돌이켜 보면 연초하락, 2/4분기 급등, 3/4분기 하락, 4/4분기 정체를 나타내고 있다. 2/4분기에 급등한 요인으로는 미국곡물의 생육기(5~6월)에 있어 고온건조 기후가 계속되면서 단위당 생산량의 급격한 저하가 전망되었기 때문이었고 특히 수요적인 측면에서 세계 원자재의 블랙홀인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이 급증하고 에탄올용 옥수수 수요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3/4분기부터 최근까지 옥수수를 비롯한 대두, 대두박, 소맥 가격은 유럽발 재정위기의 확산에 따른 상품시장이 급락하고 그동안의 생산감소의 우려가 수확기

미국의 기후양호에 따라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참조
 하지만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이 통상 3~4월 차이를 두고 국내 배합사료 가격에 반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 국내에 도착한 사료곡물은 여전히 2/4분기 급등기에 구매된 원료들로 옥수수의 경우 연초대비 17.2% 높은 가격으로 도착하고 있음을 볼 때 연말까지는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의 인상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표 5] 참조
 한편 2012년도 세계 사료곡물 가격을 수급적 측면에서 전망해 보면 생산량은 2011년 대비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곡물 생산국들의 자국

[표 5] 주요 사료용 원료 국내 도착가격 동향

(단위 : US\$/톤)

품 목	11월평균 (A)	6월평균 (B)	1월평균 (C)	가격 변동률(%)	
				A/B	A/C
옥수수	334.00	317.00	285.00	5.4	17.2
사료용 소맥	284.00	307.00	234.00	-7.5	21.4
대두박	428.00	437.00	394.00	-2.1	8.6

[표 6] 2012 세계 곡물 수급전망(미국 농무성 12월 9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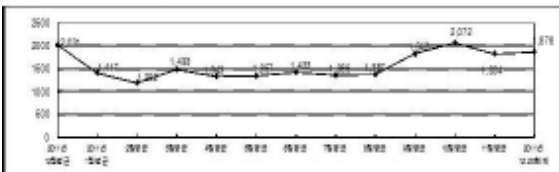
(단위 : 백만톤, %)

구 분	생산량	총 소비량		재고량	재고 비율	
		국내소비	수 출			
세 계 사료곡물	2012(A)	1145.19	1150.71	118.46	160.66	12.7
	2011(B)	1098.02	1127.17	115.18	166.18	13.4
	증감율(A/B)	4.3	2.1	2.8	-3.3	
미 국 옥수수	2012(A)	312.69	279.54	40.64	21.55	6.7
	2011(B)	316.17	284.99	46.60	28.66	8.6
	증감율(A/B)	-1.1	-1.9	-12.8	-24.8	
세 계 소맥	2012(A)	688.97	680.20	138.69	208.52	25.5
	2011(B)	651.58	653.97	131.90	199.75	25.4
	증감율(A/B)	5.7	4.0	5.1	4.4	
세 계 대두박	2012(A)	180.94	177.83	60.50	8.28	3.5
	2011(B)	173.97	169.57	58.35	8.06	3.5
	증감율(A/B)	4.0	4.9	3.7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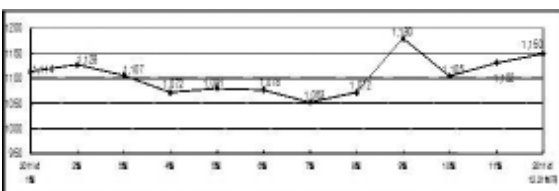
내 소비량이 2.1%, 수출량이 2.8% 증가하고 재고량이 3.3% 감소함으로써 재고비율(재고량/총 소비량)이 0.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료곡물 중 가장 중요한 옥수수의 경우 세계 교역량의 43%이상을 점유하는 미국산 옥수수의 경우 생산량 및 재고량의 감소로 재고비율이 1.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12년도 옥수수 가격의 상승이 충분히 예견된다. 다만 옥수수의 대체 품목이라 할 수 있는 소맥의 경우 생산량이 전년대비 5.7%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옥수수 가격의 상승을 견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리고 사료의 주요 단백질 요소인 대두박의 경우 남미산 대두의 작황호조에 따른 생산 및 수출증가 등으로 수급적 가격 안정을 이룰 것으로 예견된다. [표 5] 참조

한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과거 2007/2008년, 곡물가격 급등과 맞물려 국내 도착가격(Cost & Freight : C&F)을 폭등시켰던 해상운임이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미루어 졌던 신조선(新造船) 선박의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BDI(Baltic Dry Index : 석탄, 철광석, 곡물 등의 건화물선 운임지수)의 하락과 더불어 안정세를

[그래프 1] 건화물선 운임지수(BDI) 추이 (단위 : 포인트)



[그래프 2] 원/달러 환율(매매기준율) 추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그림 1] 참조 하지만 그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이 그리스 및 이탈리아로 시작된 유럽발 재정위기의 재연과 이에 따른 달러화 가치상승에 따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연말 이후 도착할 사료곡물의 원화표시 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예견되는 바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그림 2] 참조

2012년 배합사료 가격을 전망하는 것은 이제 국제곡물가격 및 해상운임 등 전통적인 수급적 요인과 더불어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혜안(慧眼)을 요구하고 있다. 작금과 같이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을 친다면 환율변동에 따라 해에 대한 의존률이 75%를 점유하는 배합사료 시장이 급변할 수 있고 또한 배합사료 원료에 대한 국제 가격 변동성 또한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적기(適期)에 사료 원료를 구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12년 배합사료 가격과 그 변동요인을 전망해 보면 곡물가격 자체는 안정적인 생산전망과 미국산 곡물의 수출부진, 중국의 대량 곡물수입 등 수급적 상승 및 하락요인이 엇갈리면서 큰 변동성 없이 현재의 가격범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원화표시 가격은 환율상승에 따라 고곡가(高穀價)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배합사료 가격의 인상요인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견된다.

